

인구구조 변화와 동남권의 과제

백충기 수석연구위원(cgbaek@bnkfg.com)
김민준 책임연구원(kmj9612@bnkfg.com)

동남권은 2017년 고령사회에 도달하였다. 전국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전개되면서 2024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는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고령자 부양의 사회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동시에 노동공급 부족 및 노동생산성 저하에 따른 경제성장을 하락이 우려된다. 특히 고령인구의 낮은 소비성향은 경제사회 전반의 활력을 크게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적극적인 소비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의 부상은 새로운 기회 요인이다. 그러므로 액티브 시니어 맞춤형 문화, 관광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관련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시니어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기업들은 고령인력을 활용해 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자체는 고령친화산업과 기존의 산업인프라를 연계하여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남권, 2017년중 고령사회로 첫 진입

동남권은 2017년들어 전체인구에서 만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4%를 넘어섰다¹⁾. UN 분류를 기준으로 고령사회로 처음 진입한 것이다. 고령화 현상이 전국보다 빠르게 진전되면서 2024년중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015년 동남권에서 가장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2022년)도 가장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은 부산보다 2년 늦은 2017년에 고령사회에 도달하였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은 2025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울산의 경우 2023년이 되어야 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되어 상대적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초고령사회로도 동남권에서 가장 늦은 2029년에 진입할 전망이다.

동남권 고령화 현황

구 분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동남권	2001년 → (16년) →	2017년 → (7년) →	2024년
부산	2003년 → (12년) →	2015년 → (7년) →	2022년
울산	2012년 → (11년) →	2023년 → (6년) →	2029년
경남	1994년 → (23년) →	2017년 → (8년) →	2025년
전 국	2000년 → (18년) →	2018년 → (8년) →	2026년

주 : 일반적으로 전체인구중 만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과정을 고령화(Aging)라고 정의. UN은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은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은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1) 2017년 전체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동남권이 14.3%이며 전국 평균 13.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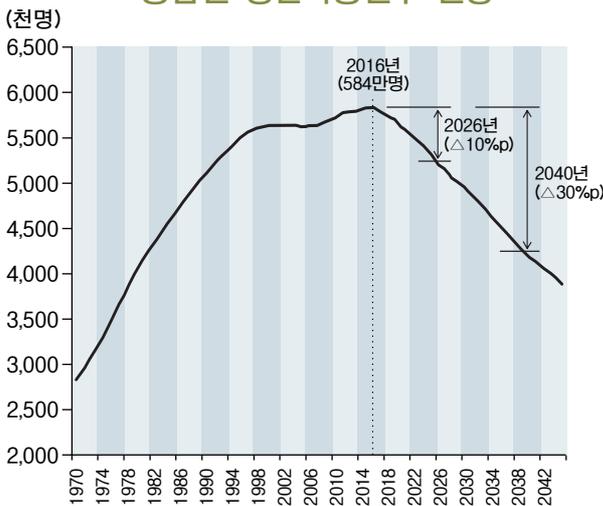
이와같은 동남권의 고령화 진전은 저출산 현상뿐만 아니라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순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주로 기인한다.

동남권의 합계출산율²⁾은 1993년 1.65명에서 2016년 1.29명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이동 측면에서도 생산가능인구(만15~64세)의 순유출이 지속되면서 고령화 현상을 심화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0~16년중 생산가능인구의 누적 순유출규모는 43만 5천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전체 인구감소분 중 생산가능인구 감소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94.5%로 호남권(91.7%), 대경권(86.8%) 등 타경제권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줄어들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6년에는 정점대비 약 10%, 2040년에는 약 3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권 생산가능인구 전망



자료 : 통계청

경제권역별 인구 순이동¹⁾²⁾

구분	경제권역별 인구 순이동 ¹⁾²⁾ (명, %)		
	15-64세 순이동(B)	전체 순이동(A)	(B/A)
동남권	-435,146	-460,572	94.5
호남권	-502,423	-548,145	91.7
대경권	-368,396	-424,465	86.8

주 : 1) 2000~16년 누적 기준
 2) 수도권과 충청권은 인구 순유입 지역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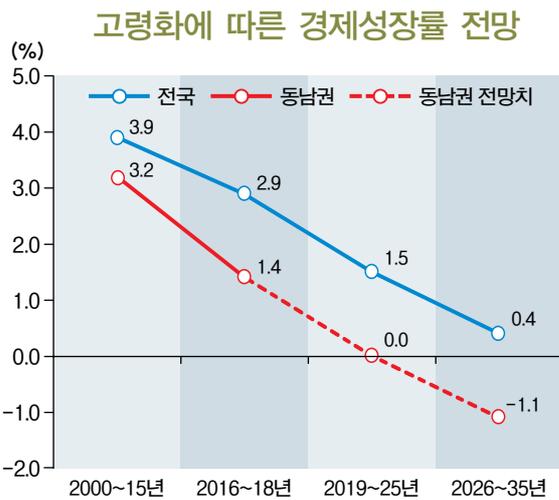
2)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며 1993년 이후 통계가 발표되고 있음

고령화 현상으로 성장률 하락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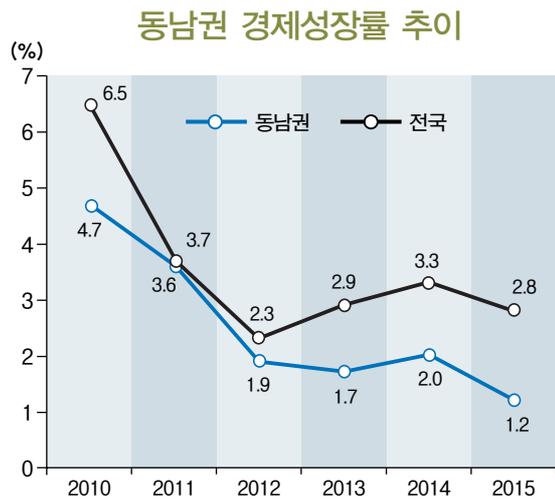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고령자 부양비율 증가에 따른 사회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동시에 경제활력도 둔화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국은행³⁾은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000~15년중 연평균 3.9%에서 2016~25년중 1.9%로 하락하고 2026~35년중에는 0.4%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동남권의 경우 전국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경제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더욱 큰 상황이다. 특히 2012년 이후 1%대의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등 전국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 추정에 기초⁴⁾하면 2019~2025년에는 동남권 경제의 성장이 멈추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주 : 1) 연평균증가율 기준
 2) 동남권은 BNK금융경영연구소 추정
 자료 : 한국은행 자료 재수정



주 :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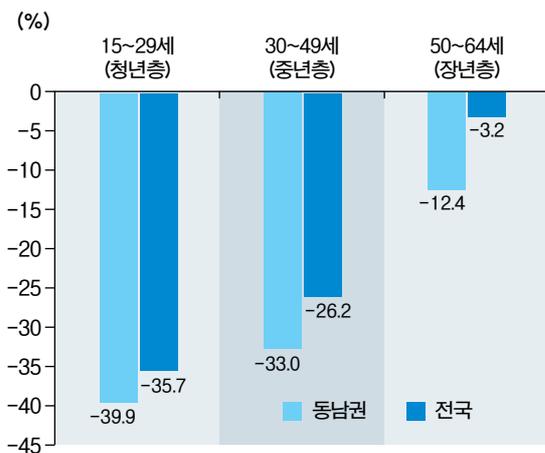
3)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00~15년 기간중 추세를 따른다고 가정하였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2015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전망치를 계산
 4) 2016~18년중 전국 경제성장률(한국은행 전망치)과 동남권 경제성장률(BNK금융경영연구소 전망치)의 Gap이 2019년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가정하여 적용

특히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부족, 노동생산성 하락에 따라 생산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먼저 노동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역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전(全)연령층에서의 인구 감소폭이 전국평균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실제로 2017~40년중 생산가능인구는 청년층(15~29세)이 39.9%, 중년층(30~49세)이 33.0% 감소하고 장년층(50~64세)은 12.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은퇴시기에 접어든 장년층의 감소폭(-12.4%)은 전국(-3.2%)의 4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용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을 경우 장년층의 고용비중이 높은 사업지원서비스업⁵⁾, 부동산 및 임대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인력부족에 따른 충격이 전국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대별 생산가능인구 감소율



주 : 2017~40년 기준
자료 : 통계청

동남권 50세이상 비중 상위 업종

순위	산업	50세 이상 비중 (%)
1위	사업지원서비스업	61.5
2위	부동산 및 임대업	59.0
3위	운수업	58.1
4위	숙박 및 음식점업	53.8
5위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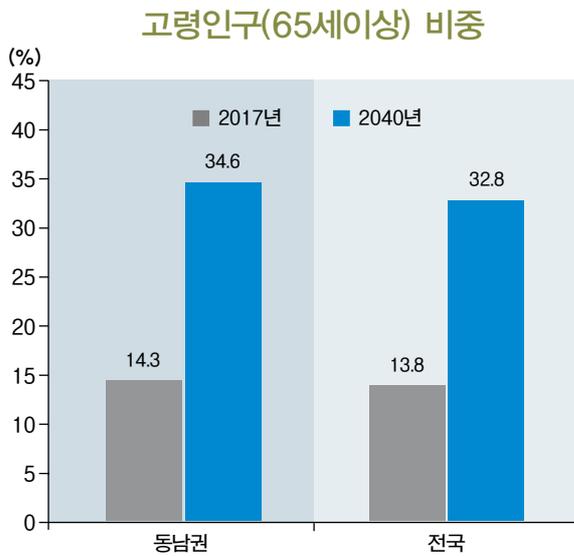
주 : 1) 농림어업, 광업 제외
2) 2016년 기준
자료 :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5)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 활동과 고용지원 서비스, 보안 서비스, 여행보조 서비스, 사무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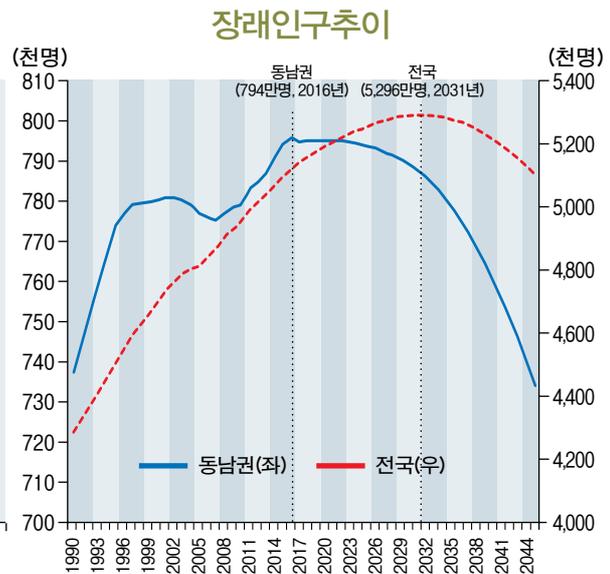
고령인구 비중 확대에 따른 노동 생산성 하락도 지역생산의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고령인구는 상대적으로 인지능력, 민첩성 등 신체적 기능면에서 다소 약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IMF 연구⁶⁾ 등에 따르면 연령과 노동생산성 간에는 역 U자 형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남권은 2017년 기준 고령인구 비중(14.3%)이 전국 평균(13.8%)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 역시 빠르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생산성 둔화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게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 진전은 동남권 총인구가 줄어드는 현상⁷⁾을 야기하므로 교육, 주택 등 경제사회 전반의 활력을 둔화시켜 생산부진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6) The impact of demographics on productivity and inflation in Japan(IMF, 2016.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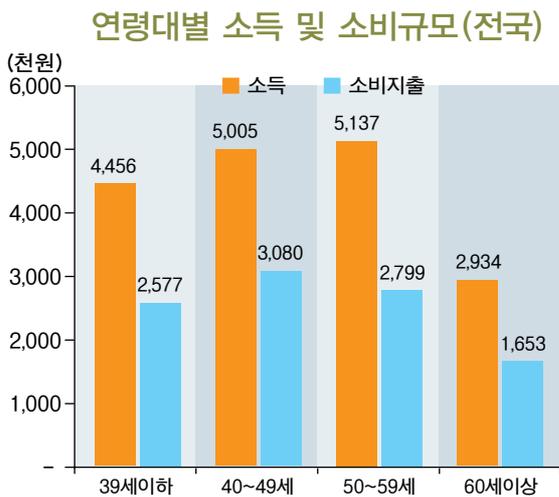
7) 동남권 총인구는 2016년 794만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하고 있음. 한편 전국의 경우 동남권 보다 늦은 2032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추정됨

고령화에 따른 전체 소비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시니어 소비시장은 성장 기대

향후 동남권 소비시장의 규모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낮은 소득수준, 적은 지출 규모 등의 특징을 보유한 60대 이상 인구는 늘어나고 소득, 지출 면에서 우위에 있는 40대, 50대 인구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국기준으로 40대와 50대의 월평균 소득은 약 500만원, 지출규모는 약 300만원 내외인데 반해, 60세 이상은 소득 293만원, 지출 165만원으로 크게 낮은 상황이다. 한국은행 연구에서도 일본의 경우 월간 지출규모가 50대는 36만엔에 달했으나 70대 이상은 24만엔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함께 60대 이상의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소비시장 위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60대 이상의 평균 소비성향은 2010~16년중 11.0%p 하락하면서 전연령대에서 가장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기준)
자료 : 통계청

연령대별 평균소비성향(전국)

(%, %p)

구분	2010년 (A)	2016년 (B)	(B)-(A)
전체	77.3	71.1	△6.2
39세 이하	76.6	70.2	△6.4
40대	81.4	75.9	△5.5
50대	73.3	67.9	△5.4
60대 이상	74.9	67.2	△11.0

자료 : 통계청(가계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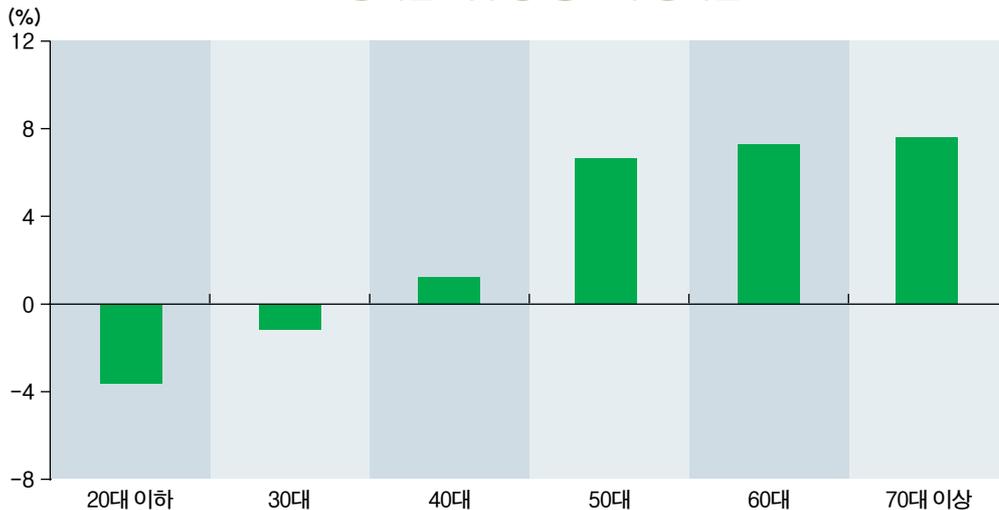
8) 고령층이 총소비 및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8.8%, 19.3%로 가구수 비중(29.1%)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고령층의 총소비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인구 개인은 소비성향이 낮고, 소비지출도 적지만 고령층의 절대규모가 증가하면서 전체 소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국내 전체 소비규모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18.8%에서 2020년 24.0%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고령층이 소비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는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전국 기준으로 2011~15년중 연령대별 총소비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30대 젊은 층은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연평균 8%에 달하는 증가세를 기록해 시니어 소비시장의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층이 주력 소비계층으로 부상하면서 여가, 식품, 의료 등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⁹⁾은 고령친화시장 규모가 2012년 27조 4천억원에서 2020년에는 72조 8천억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령대별 가구당 총소비 증가율



주 : 1) 2011~15년 연평균 증가율
 2) 2인 이상 가구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재인용

9) 고령친화산업환경변화 및 대응방안(보건산업진흥원, 2015. 7월)

시니어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 필요

고령화에 따른 생산,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고령화 시대를 맞아 시니어 소비시장의 성장이 새로운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은 소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계적 종합 회계·자문기업인 KPMG는 현재의 40~50대는 향후 고령인구로 편입될 경우 액티브 시니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며 이들의 소비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¹⁰⁾

액티브 시니어는 양호한 노후준비, 높은 경제력, 자신을 위한 지출성향 등에서 기존의 고령인구와는 다른 소비패턴을 보여 적극적 소비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향후 연금소득 증대, 의료복지혜택 확대 등으로 노후 불안이 완화될 경우 고령층의 소비성향 하락폭이 둔화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시니어 특징 변화

구분	기존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세대특성	• 수동적, 보수적	• 적극적, 미래지향적
경제력	• 경제력 보유층이 적음	• 경제력 보유층이 두터움
노년의식	• 인생의 황혼기	• 새로운 인생의 시작
가치관	• 본인을 노년층으로 인식	• 실제보다 5~10년 젊다고 생각
소비관	• 검소함	• 합리적인 소비생활
취미활동	• 취미 없음	• 다양한 취미
레저관	• 일 중심, 여가활용에 미숙	• 여가에 가치를 두며 생활
노후준비	• 자녀세대에 의존	• 스스로 노후 준비
보유자산	• 자녀에게 상속	• 자신의 노후를 위해 사용

자료 : KPMG 재인용

10) KPMG는 50대와 60대의 자가점유율(2015년 기준)이 각각 62.6%, 74.2%로 높고, 자산규모(2016년 기준)도 50대 4.43억원, 60대 3.66억원으로 조사되는 등 자기 부양능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

기존 시니어와 다른 액티브 시니어가 새로운 소비주체로 부상하는 만큼 맞춤형 문화, 관광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관련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시니어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시니어 산업이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고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육성지원을 서둘러야 할 이유이다. Deloitte¹¹⁾에 따르면 관광교류가 활발한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에서 2020년을 전후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예정이며 2030년에는 전세계 만65세 이상 인구의 60%가 아시아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개별기업들은 고령화로 인해 노동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은퇴인력 재고용, 외국인과 여성에 대한 고용확대 및 맞춤형 인력 배치 등 노동공급 부족에 대비한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자동차기업인 Mercedes-benz는 혁신조직에는 젊은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의 안정성이 중시되는 조직에는 고령인력을 활용해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실버마켓 상품과 서비스개발의 경우 고령인력을 집중 배치해 고령소비자 공략에 적극 활용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도 고령화 시대 대응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시니어들의 헬스케어, 관광, 간편음식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제약, 항공기제조, 가공식품 관련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성장이 기대되는 고령친화 산업과 기존 산업 인프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전략도 중요할 것이다.

11) Demographics fuelling Asia's shifting balance of power(Deloitte, 2017.9월)

[참고문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mdis.kostat.go.kr

한국은행, “인구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 2017.8

_____ ,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017.7

_____ , “인구구조변화가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미치는 영향,” 2017.4

한국금융연구원, “평균 수명 증가가 연령별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 : 고령층을 중심으로,” 2015.9

Deloitte, “Demographics fuelling Asia’s shifting balance of power,” 2017.9

Feyer, “Demographics and productivity,” 2007.

IMF, “The impact of demographics on productivity and inflation in Japan,” 2016.12

KPMG, “고령사회 진입과 시니어 비즈니스의 기회,” 2017.6

BNK경제인사이드 발간목록

2014

0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남권 수출의 변화와 시사점
06	부산지역 아파트 시장 동향과 전망
07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동남권 조선업의 과제
08	동남권지역의 고용구조 변화와 시사점
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화환율 동향과 전망
10	동남권 지방은행의 그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1	2015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월드클래스 300기업의 특징과 지역기업에 대한 시사점

2015

01	G2경제 항방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2	최근 국제금융시장 진단과 시사점
03	동남권의 중남미 교류 현황과 과제
04	지역경제 혁신의 동력 - 사물인터넷
05	동남권 자동차산업 현황과 과제
06	동남권지역 서비스업 현황
07	최근 기업금융 현황
08	중국경제 전망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9	동남권지역 주택시장 현황
10	동남권 창업생태계와 발전과제
11	2016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경쟁력 우수 조선해양기자재업체의 특징

2016

01	중국경제에 대한 최근의 시각
02	회사채 시장 동향 분석
03	10대 신흥국(중국제외)에 대한 동남권지역 수출 분석
04	동남권지역 건설업 분석
05	한국형 양적완화와 구조조정
06	주요국 통화 환율 동향과 전망
07	브렉시트와 지역경제
08	동남권 상장기업 경영실적 분석
09	동남권지역 대출 및 예금시장 동향
10	동남권지역 소매판매 동향 및 특징
11	2017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동남권 수출 변화 및 시사점 : 최근 5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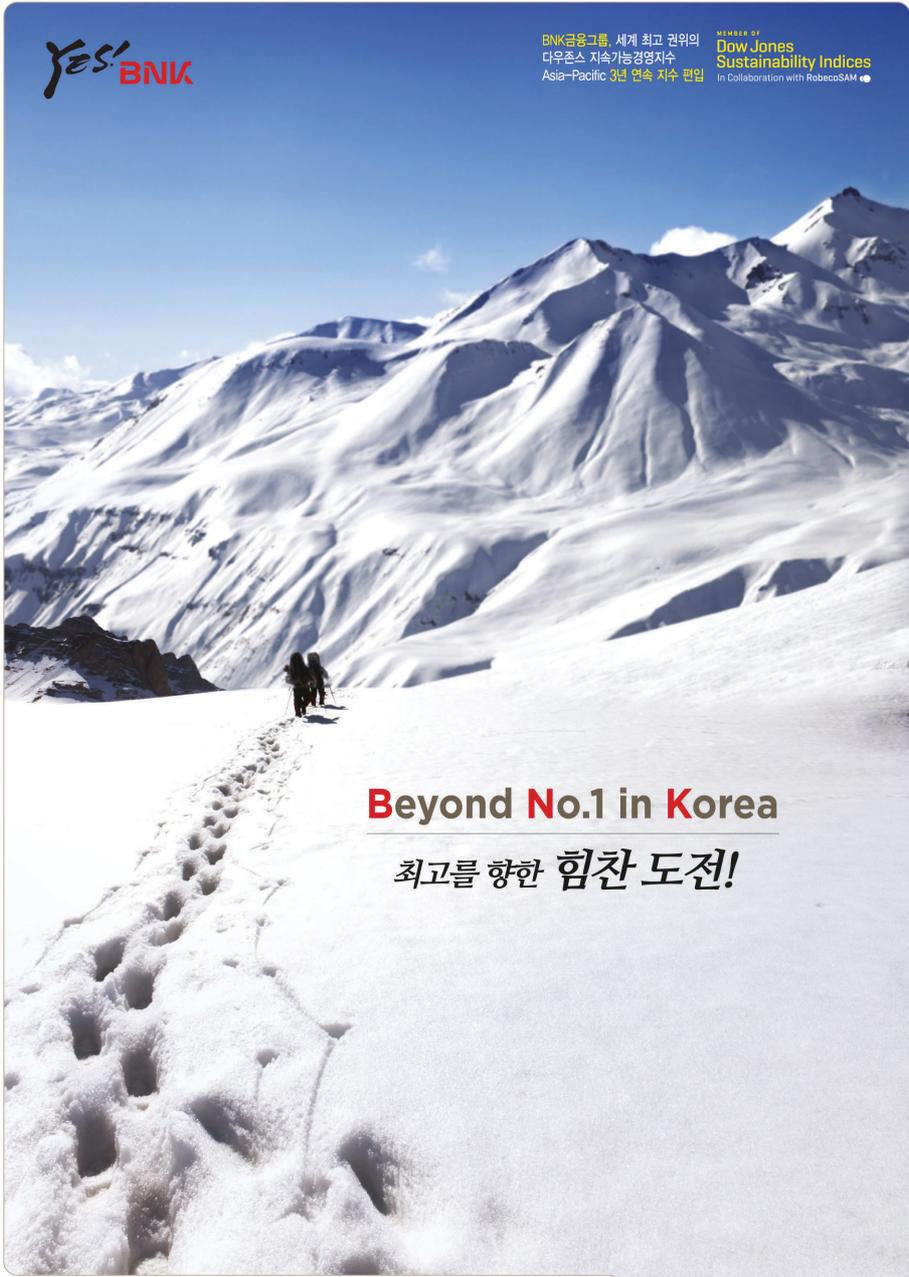
2017

01	동남권 아파트 가격 동향 및 전망
02	4차 산업혁명과 동남권 일자리
03	동남권 기업의 인도차이나반도 진출현황 및 시사점
04	글로벌 환율동향과 동남권 경제
05	원자재시장 동향 및 시사점
06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과제
0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남권의 미래
08	동남권 주력산업 수출동향과 전망
09	동남권 산업생태계와 향후 과제
10	인구구조 변화와 동남권의 과제



BNK금융그룹, 세계 최고 권위의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Asia-Pacific 3년 연속 지수 편입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In Collaboration with RobecoSAM



Beyond No.1 in Korea

최고를 향한 힘찬 도전!

BNK 금융그룹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투자증권 BNK 캐피탈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BNK BNK금융지주

제2017-10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김지완

편집인 정민주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17년 10월 31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